

현실을 사유하는 두 산책자의 시선

글 | 이대범



시공간을 가르며 끊임없이 도시를 산책하는 두 사람이 있다. 도시를 산책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도시'라는 장소성 자체가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과거-현재'라는 이질적 시간대의 조합(혹은 소용)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산책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시선의 체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상하는지 그 양식을 살펴봐야 한다.

전체를 조망하며 머무거리다

김보민이 묘사하는 도시에는 고층 아파트, 빌딩, 자동차 도로, 골목길, 자동차, 비행기 등의 현재로 대변되는 도시적인 이미지들과 산 강 나무 학 등의 과거로 대변되는 자연적인 이미지가 공존한다. 이러한 대비는 '센'을 라인테이프로 대치하는 것과 함께 초기 작업부터 지속해 온 그의 방법론이다. 초기작인 〈Open Studio〉(2005)는 그의 이후 작업 변화 과정을 고려했을 때, 주요한 작품이다. 김보민은 이 작업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작업실(현재)이 저 밖의 풍경(과거)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저 밖의 풍경(과거)이 작업실(현재)을 끌어들이는 반복 투사 구조를 선보였다. 더 나아가

가 작가는 이 사이에 앉아 거울을 통해 '나'를 사유했다. 그러나 이후 작업은 반복 투사 구조의 상호작용에서 '나'의 실존적 가치를 사유하기보다는 상이한 두 요소의 적절한(?) 균형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행보는 이번 전시까지 이어지면서 적절한 균형은 완벽한 균형으로 변했다. 즉, 이질적으로 보이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은 이번 전시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Open Studio〉에서 거울을 보며 '과거-현재'의 시간을 통해 내밀하게 자신을 사유하던 작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눈높이 시점에서 풍경의 이동과 시선의 유동성을 추구했던 김보민의 작업은 좌우가 긴 파노라마 화면이 대부분이었다. 이 작업은 도시를 산책하는 작가의 동선과 시선을 따라가면서 삶의 현장에 대한 애증을 끊임없이 개입시켜 자신의 실존적 의식과 시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러한 김보민의 작업에 내재한 시선은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구보 씨와 같이 특권적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도시(일상)의 내부 공간을 스스로 움직이는 주체이다. 그 결과 작가의 주변에서 추상적으로 보이던 도시는 구체적으로 포착된다. (필자는 김보민의 이러한 시신을 <김보민:



김보민 〈여의도 라인에 수목채색 테이프 194×121cm 2009

오른쪽 페이지 김보민 〈화동 라인에 수목채색 테이프 130×162cm 2008

'저 밖의 풍경'에서 '밖의 풍경'으로)에서 이미 언급했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삼청도〉〈가회도〉〈원서도〉는 이전의 눈높이 시점을 버리고 전체를 조망하는 부감법(俯瞰法)을 사용해 마치 지도와 같은 모습이다. 지도와 '유사'하기에 그의 작업은 지도로서 그리고 그림으로서 보라고 요구한다. 실제 지도, 작가의 현장 답사, 그리고 상상력이 중첩된 이 작업은 흥미롭다. 그러나 전작과 비교해 시점의 주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가 지속해 온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탐구하기에는 너무 높은 곳(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미학적 거리마저도)에 위치한 듯하다. 여전히 라인테이프를 사용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자신의 실존적 가치 탐구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이번 전시에서 라인테이프의 사용은 정당성을 찾지 못하고 갈 길을 잃어 버린 자의 머뭇거리므로 보인다.

김보민의 머뭇거리 이후의 행보를 가능할 수 있는 작품은 〈밖

섭〉이다. 어느 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 밤섬은 그 자체로 기이한 섬이다. 이 작업에는 세 가지 시점이 공존한다. 밤섬과 그 근교 전체를 조망하는 부감법, 강변북로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밤섬, 밤섬에서 바라본 저 먼 곳의 산 등이 한 화면에서 조화롭다. (그럼에도 밤섬 주변에 떠 있는 나뭇배는 여전히 머뭇거리의 흔적으로 보인다.) 이 작업은 〈삼청도〉〈가회도〉〈원서도〉에서 보이던 전체를 조망하며 시각적 통어력을 행사하던 시선 대신, 풍경의 이동과 시선의 유동성을 담는다. 그리고 이것은 밤섬의 특이한 역사성과 결합해 그 자체로 시간의 축적을 구현하면서 자신을, 현실을 사유하도록 한다.

비켜 바라보다

정우영은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산책한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점하는 대상을 관찰하고 마침